

# 세계 곳곳에 민주·인권·평화의 씨앗을 뿌리다

##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오월정신의 전도사로

### 14개국 20명 활동

5·18 민주항쟁이 올해로 34주년을 맞았다. 5월 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상징하는 역사의 한 축으로 우뚝 서 있다.

송고한 '민주화의 꽃'이 피어난 지 34년이 다 된 지금, 광주의 오월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상징하는 꽃씨가 돼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는 '5월 정신'으로 무장한 인권운동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5·18기념재단의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이 그 주역이다. 광주일보는 이들 '광주 정신 전도사'의 현지 활동 취재를 통해 광주 정신의 의미 등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 2000년 제정... 올해로 15회째 수치 여사 등 민주지도자 수상 각국에서 민주화 견인차 역할

5월 광주의 정신은 국내·외 민주·인권·평화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5월 정신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 민주화 운동의 송고한 꽃씨로 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정신의 흙씨가 본격적으로 해외로 퍼져나간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18 기념재단은 5월 항쟁의 모태인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광주인권상을 제정했다.

광주인권상은 올해까지 15회째를 맞는 동안 광주 항쟁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공헌한 인사 또는 단체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권위도 높아졌다.

군부독재 시기에 실종·처형·투옥되거나 억압을 피해 망명했던 시민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딸들'(Hijos e Hijas por la Identidad y la Justicia el contra el Olvido y el Silencio·H.I.J.O.S)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인권유린 실태 조사, 진실 규명 등 활발한 인권 운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인권상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한때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발행이 금지



지난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난해 1월 2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당했던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Tempo)는 지난해 부당한 권력과 부패를 고발한 점이 인정돼 특별상을 받았다. 또 문정현 신부는 지난 2012년 평생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역임받고 소외된 이들과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 온 점이 인정돼 광주인권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여·68·2004)를 포함한 인도의 인권활동가 비나야 센(Binayak Sen·60·2011), 네팔의 민주화와 인권운동가인 수실 파큐렐(Sushil Pyakurel·59·2010)씨 등이 있다.

올해까지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모두 20명(특별상 2명 포함), 나라별로는 ▲인도 3명 ▲한국 2명 ▲베마 2명 ▲인도네시아 2명 ▲스리랑카 2명 ▲파키스탄·네팔·동티모르·이스라엘·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이란·태국 1명씩 등 모두 14개국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민주·인권환경이 열악한 나라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사회운동, 정치권,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광주인권상 수상을 통해 5월 정신의 의미 등을 폭 넓게 이해한 뒤 국내·외에서 5월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인권운동가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남다른 재목들로 국내외에서 민주·인권·평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5·18 민주항쟁이 34년이 다가온 지금, 이들의 활약 덕분에 5월 정신은 민주화화 인권에 똑마른 국내외의 소수자들에게 감로수가 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인권상 주요 수상자

●2000년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독립혁명 전선을 조직, 대규모 무장독립투쟁 주도.



●2002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 국회 통과 큰 역할.



●2004년 아웅산 수치 버마 신군부에 대해 해 비폭력 평화투쟁 고수.



●2008년 무니르 말리크 파키스탄 인권변호사로 사법권 독립과 언론자유 위해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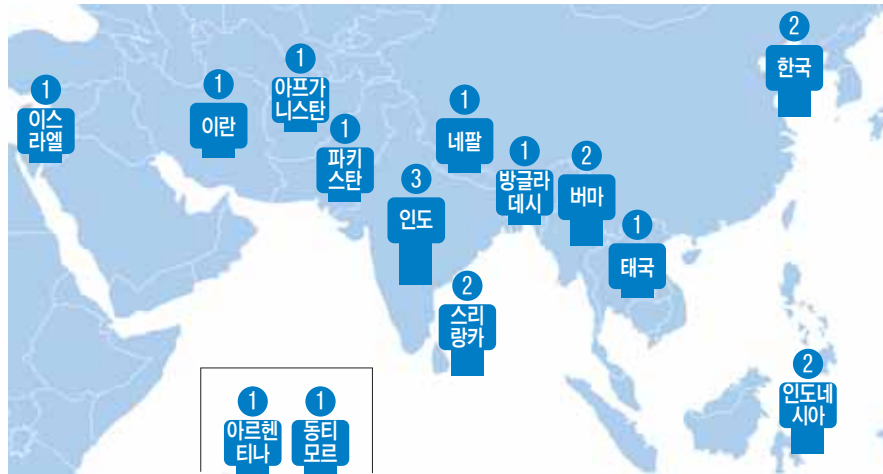
●2010년 수실 파큐렐 네팔 인권위원장 맡아 민중의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



●2012년 문정현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결성 주도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



### ■ 광주인권상 수상자 국가별 현황



### “일베 ‘루저 비하’는 책임회피 사이트 사라져도 해결 안 돼”

정근식 서울대교수 지적

5·18 민주항쟁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루저들의 집합 또는 정신 이상자들로 비하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우리가 가진 어떤 혐의를 해소하려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 등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의신기자클럽에서 연 ‘사이버공간에서의 5·18 담론과 그 변화 : 일베저장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에서 “일베는 지난 2009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널리 퍼진 ‘드립’으로서 지역주의를 체화했으며 인터넷 상에서만 활동하는 좌파들-기보드위러-에 대한 반감으로 보수주의를 채택한 이들”이라며 “이러한 반감은 촛불집회와 천안함 폭침사태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며 더욱 강고해졌고 인증대란 등을 거치며 통일된 문화화 표상을 공유하는 집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베에서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라기 보단 시위대가 국가의 에이전트인 계엄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폭동으로 이해됐다”며 “일베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 5·18 수정주의는 상당부분 지만원·역사학도 등의 이데올로그들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일베에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도 유족들에 대한 공감보다는 잠수요원들과 대통령 등 정부 측 인사들에게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러한 모습은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베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베 이용자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에 환호하고 유가족을 보살금이나 노리는 속물로 이해하며 대통령과 군인, 잠수부를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공감에 희생자보다는 가해자에게 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5·18 수정주의에서 북한 특수부대 첩투론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결국 민중은 스스로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생각은 일베 이용자들이 엘리트 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일베를 루저들의 집합이라거나 정신병자들로 비하하며 타자화시키는 것은 ‘일베를 통해 우리가 가진 어떤 혐의를 불안을 해소하려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났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얻고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일베라는 사이트가 사라지기만 하면 해결될 일일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